

##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보육 연계 실태와 시사점

- 맞벌이부부의 일과 자녀양육(보육)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자녀양육비 증가 및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함

- 보육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1. 서론

-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이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년)을 추진하여 대응하고 있음

○ 제1차 기본계획은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특히 보육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양립정책이 보다 강화되었음

- 그러나 두 정책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책 수혜 대상자의 체감도가 낮음

○ 정책의 효과성 및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정책과 자녀양육 관련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취업모(맞벌이부부)의 일과 자녀양육(보육) 간의 연계 실태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11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보육과 일·가정양립 연계를 위한 자녀 양육 실태조사」 결과임. 이 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취업모(1,000명)만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2. 실태조사 주요 결과

가. 취업모의 출근시간과 미취학 자녀 양육 행태

□ 취업모가 출근을 위하여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하 '출근시간'이라 칭함)이 이룰수록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또는 보육시설·유치원과 함께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반면 출근시간이 늦은 경우 전혀 양육지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보육시설·유치원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취업모의 집 출발시각이 8시 이전인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17.3%, 보육시설/유치원과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비율이 27.1%로 각각 나타남. 이러한 비율은 출근시간이 오전 8~9시(15.4%, 21.8%)와 오전 9~10시(7.4%, 22.1%)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임. 즉, 일찍이 출근하는 경우 출근시간 후 시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피함을 나타냄
- 한편, 오전 10시 이후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아마 퇴근시간이 늦어져 보육시설/유치원 이외에 기타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취업모의 출근을 위한 집 출발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전체
	오전 8시 이전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시 이후	
양육지원서비스 미이용	7.6	7.2	10.3	4.1	7.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17.3	15.4	7.4	-	12.9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45.9	54.6	58.8	62.6	54.2
보육시설/유치원+개인양육지원서비스	27.1	21.8	22.1	27.1	23.3
기타	2.2	1.0	1.5	6.2	1.9
계	100.0(133)	100.0(293)	100.0(68)	100.0(48)	100.0(572)

주: 취업모의 경우 집 출발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취업모의 출근시간이 이룰수록 자녀가 취업모가 출근한 후에 등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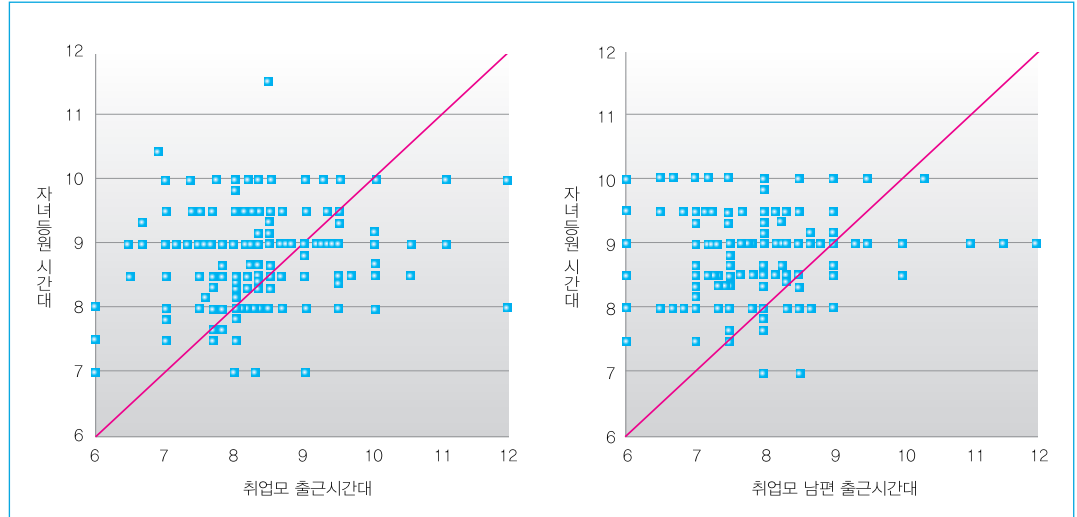
- 취업모가 7시 30분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대다수인 97.4%가 취업모 출근 후인 7시 30분 이후에 자녀가 등원하는 반면, 9~10시 사이에 출근하는 경우 14%만이 취업모 출근 후에 자녀가 등원함
-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모의 남편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남(그림 1)

〈표 2〉 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단위: %, 명)

기관 보내는 시간대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전체
	오전 7시30분 이전	오전 7시30분~8시	오전 8~9시	오전 9~10시	오전 10~12시	오전 12시 이후	
7:30 이전	2.6	-	0.9	2.0	-	-	0.9
7:30~8시 이전	7.9	5.7	0.9	-	-	-	1.9
8~9시 이전	15.8	35.8	47.7	26.0	29.2	16.7	37.6
9~10시 이전	60.5	56.6	46.3	58.0	41.7	55.6	50.7
10시 이후	13.2	1.9	4.1	14.0	29.2	27.8	8.9
계	100.0(38)	100.0(53)	100.0(218)	100.0(50)	100.0(24)	100.0(18)	100.0(42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출발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출발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 취업모 및 남편의 집 출발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분포



주: 6시 이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와 12시 이후 집 출발, 등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 나. 취업모의 퇴근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 행태

□ 취업모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하 '퇴근시간' 이라고 칭함)이 늦을수록 친인척이나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보육시설·유치원과 함께 다른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10% 미만이나, 오후 4~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0.7%, 오후 7~8시에 퇴근하는 경우 18.8%, 오후 8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 19.4%임

<표 3> 취업모의 퇴근 후 집 도착시간과 미취학 자녀의 양육서비스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미이용	9.7	11.3	7.1	3.8	9.2	7.7
개인양육지원서비스	7.0	5.6	10.7	18.8	19.4	12.9
보육시설/유치원	56.9	52.1	57.1	51.3	51.0	54.2
보육시설/유치원+개인양육지원서비스	25.0	28.2	24.3	23.8	17.3	23.3
기타	1.4	2.8	0.7	2.5	3.1	1.9
계	100.0(72)	100.0(71)	100.0(140)	100.0(160)	100.0(98)	100.0(572)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취업모의 퇴근시간이 늦을수록 취업모의 퇴근 전에 자녀가 하원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취업모가 오후 5시 이전에 집에 도착하는 경우 42.7%가 취업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자녀가 하원하는 반면, 취업모가 오후 7~8시 사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82.7%, 취업모가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대다수인 93.8%가 취업모 도착 전에 하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부부 중 남편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남(그림 2)

〈표 4〉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 · 유치원 하원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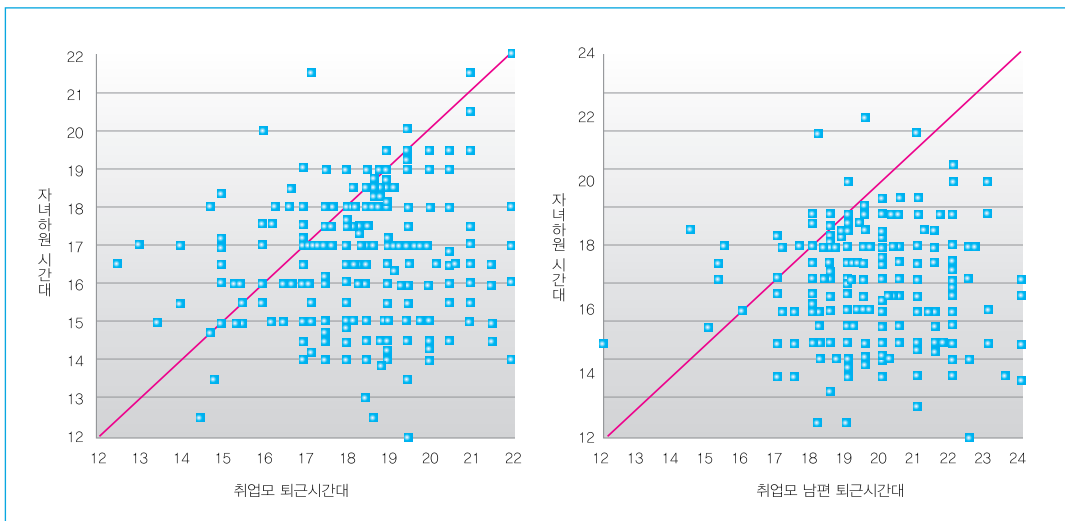
(단위: %, 명)

기관 데려오는 시간대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오후 5시 이전	오후 5~6시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14시 이전	3.8	-	2.7	1.7	-	1.7
14~15시 이전	1.9	13.0	9.0	9.5	9.2	9.0
15~16시 이전	25.0	16.7	8.1	11.2	16.9	13.4
16~17시 이전	26.9	13.0	11.7	16.4	29.2	18.4
17~18시 이전	23.1	40.7	26.1	14.7	15.4	22.4
18~19시 이전	17.3	11.1	37.8	29.3	12.3	25.0
19시~20시 이전	-	3.7	4.5	16.4	10.8	8.5
20시 이후	1.9	1.9	-	0.9	6.2	1.7
계	100.0(52)	100.0(54)	100.0(111)	100.0(116)	100.0(65)	100.0(424)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그래프에서 취업모와 취업모 남편 모두 퇴근시간대와 자녀의 하원시간대가 대각선(퇴근 시간과 하원시간이 동일한 선)을 기준으로 선 근처보다 선 아래쪽 부분에 많이 분포해 있으며, 이는 부모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많은 자녀가 하원한다는 것을 나타냄

〈그림 2〉 취업모 및 남편의 집 도착시간과 자녀의 보육시설 · 유치원 하원시간 분포



주: 12시 이전 집 도착 · 하원하는 경우와 22시 이후 집 도착 · 하원하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의 방과후 양육방법 및 선호도

□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 · 서비스로는 학원이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방문교육 14.7%, 학원+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3.8% 순으로 나타남. 아무 것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5.3%에 불과함

○취업모의 퇴근시간이 이룰수록 아무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남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에 학원과 방문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행태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오후 6시 이전	오후 6~7시	오후 7~8시	오후 8시 이후	
미이용	8.0	3.7	5.7	4.7	5.3
학원	25.9	33.2	35.9	25.2	31.0
방문교육	7.5	6.8	5.2	6.3	6.1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1.4	12.1	11.5	15.7	12.7
학원 + 방문교육	11.4	14.2	14.1	20.5	14.7
학원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4.4	14.7	12.5	11.0	13.8
방문교육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7.0	1.6	4.2	4.7	4.2
학원 + 방문교육 + 기타기관 및 프로그램	11.4	12.1	7.3	3.9	8.9
기타	3.0	1.6	3.6	7.9	3.4
계	100.0(201)	100.0(190)	100.0(192)	100.0(127)	100.0(75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이 이용하는 보육·교육서비스 개수는 2개가 2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개 이상 22.4%, 3개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모의 집 도착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 이전에 도착하는 경우 하나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그리고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자녀의 이동을 우려해서인지 1개 서비스 만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6〉 취업모의 집 도착시간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개수

(단위: %, 명)

구분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전체
	18시 이전	18~19시	19~20시	20시 이후	
0개	8.0	3.7	5.7	4.7	5.3
1개	14.9	13.7	17.7	25.2	16.7
2개	20.9	27.4	23.4	20.5	24.2
3개	18.9	21.1	19.8	15.0	19.0
4개	13.9	14.2	10.4	11.0	12.4
5개 이상	23.4	20.0	22.9	23.6	22.4
계	100.0(201)	100.0(190)	100.0(192)	100.0(127)	100.0(756)

주: 취업모의 경우 집 도착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분석하였으므로, 취업모 집 도착시간대 응답의 합과 계가 맞지 않을 수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취업모가 선호하는 방과후 보육·교육방법은 학교의 방과후 특기적성프로그램이 3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원 27.2%, 부모 14.0% 순임

○ 이러한 선호도는 취업모의 직종 간과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직종 중에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인 경우에 사설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사설 학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가 교육의 목적을 더 중시여기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표 7〉취업모의 특성별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방과후 보육 · 교육방법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부모가 직접	학교 방과후 특기 적성 프로그램	사설학원	방과후 보육 (학교,어린이 집,유치원)	기타	계
전체	14.0	37.8	27.2	8.4	12.6	100.0(1,000)
종사상 지위( $\chi^2=3.2$ )						
임금근로자	13.5	38.0	27.2	8.0	13.3	100.0( 813)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16.0	36.9	27.3	10.2	9.6	100.0( 187)
직종( $\chi^2=21.6^*$ )						
관리자,전문가 등	12.7	35.6	34.7	8.5	8.5	100.0( 118)
사무종사자	14.5	35.9	27.5	7.8	14.3	100.0( 524)
서비스/판매종사자	13.7	37.5	27.3	7.8	13.7	100.0( 256)
기타	13.7	51.0	16.7	12.7	5.9	100.0( 102)
퇴근시간대( $\chi^2=12.7$ )						
18시 이전	13.1	41.4	26.2	7.8	11.5	100.0( 244)
18시~19시 이전	12.9	40.2	26.9	6.8	13.3	100.0( 249)
19시~20시 이전	12.7	35.3	29.5	7.3	15.3	100.0( 275)
20시~	18.8	35.4	23.2	11.6	11.0	100.0( 181)
초등 저학년자녀 유무( $\chi^2=35.5^{***}$ )						
초등 저학년자녀 없음	18.5	35.1	17.9	13.2	15.2	100.0( 302)
초등 저학년자녀 한명이상 있음	12.0	39.0	31.2	6.3	11.5	100.0( 698)

라. 취업모의 근무형태 변경 희망

□ 취업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형태를 변경하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는 변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현 근무형태를 유지하되 근무 시간만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18.3%, 현재 전일제에서 파트타임으로 또는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6.4%로 나타남

○ 취업모의 근무형태 변경 희망도는 종사상지위, 퇴근시간대,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비교적 시간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영자나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그리고 퇴근시간대가 늦어질수록, 현재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근무 시간 변경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표 8〉 취업모의 특성별 자녀 양육을 위한 근무형태 변경 희망

(단위: %, 명)

구분	변경 희망하지 않음	전일제/파트타임으로 변경 희망	현 근무형태 유지하되 근무시간만 변경 희망	계
전체	75.3	6.4	18.3	100.0(973)
종사상 지위( $\chi^2=9.4^{**}$ )				
임금근로자	73.4	6.5	21.0	100.0(794)
자영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	83.8	5.6	10.6	100.0(179)
직종( $\chi^2=7.0$ )				
관리자,전문가 등	79.3	3.4	17.2	100.0(116)
사무종사자	73.1	6.6	20.3	100.0(517)
서비스/판매종사자	76.1	6.6	17.3	100.0(243)
기타	80.4	8.2	11.3	100.0( 97)
퇴근시간대( $\chi^2=16.9^*$ )				
18시 이전	79.2	6.4	14.4	100.0(236)
18시~19시 이전	80.0	6.5	13.5	100.0(245)
19시~20시 이전	73.1	6.3	20.7	100.0(271)
20시~	66.9	5.7	27.4	100.0(175)
미취학자녀 유무( $\chi^2=6.9^*$ )				
미취학자녀 없음	78.6	6.0	15.4	100.0(519)
미취학자녀 한명이상 있음	71.6	6.8	21.6	100.0(454)

### 3. 시사점

□ 이상 분석 결과, 그 간 보육 및 방과후보육, 일가정양립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었으나, 여전히 일-가정(보육) 간의 양립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시사점 내지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취업모(혹은 맞벌이부부 모두) 대부분 출·퇴근 시간(집을 기준으로 출발 및 도착 시간)과 자녀(들)의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의 괴리가 발생하여 자녀돌봄의 시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그러한 시간적 사각지대는 당사자들의 심리적·육체적 고통은 물론 추가적인 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져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비용은 자녀가 어릴수록 취업모의 출근시간이 이르고 퇴근시간이 늦을수록 더 큼
- 둘째, 취업모(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적어도 저학년생일 때 방과 후에 맡길 데가 마땅치 않음. 또한, 아동의 학습 보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모(남편)가 가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취업모의 퇴근 후 귀가시간이 늦어질수록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교육·양육서비스를 학원 등에 의존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맞벌이부부(취업모)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 중 일부는 홀로 방치되고 있기도 함. 요컨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몇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취업모(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과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 시간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 보육시설의 기준운영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종일제 유치원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며, 아울러 단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함
- 동일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취업모 가정과 취업모 가정의 연결을 통하여 등·하원을 도와주는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정규수업 후에 의무적으로 오후 4시까지 방과후수업 특기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4시부터 6시까지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택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함
- 부모 근무시간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맞춤형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규모가 작은 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 후 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부부에 대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성화하며, 특히 취업모가 자녀 돌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0~20분 늦게 출근하고, 5~10분 정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이삼식(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226)  
 이지혜(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전문연구원)      문의(02-380-826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